

韓·中·日 황금연휴에 호텔·유통가 '함박웃음'

서울·제주 등 유명 여행지에 관광객 북적북적 연휴 막바지 비 내려 백화점·면세점 반사이익

지난달 27일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개국 황금연휴에 내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호텔 등 숙박업체와 면세점 등 유통업체들이 모처럼 특수를 누렸다.

이번 3개국 연휴는 한국의 어린이날(5월 4-6일), 중국 노동절(오일절·5월 1-5일), 일본 골든위크(4월 27-5월 6일) 등으로 열흘가량 이어졌다. 서울과 제주 등 유명 여행지에서는 중국인 등 관광객이 대거 몰렸다. 연휴 막바지에 비가 내리면서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의 업종은 몰

려드는 수요로 반사이익을 거뒀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번 황금연휴 관광 성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7일 "공식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OTA(인터넷 여행사)나 항공편 예약률,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여행) 점유율 등을 체크해본 결과 중국 방문율이 상당히 높고 일본인의 방문율도 평소보다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골든위크 기간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10만명, 노동절 기간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8만명에 각각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3사 '활짝' 신세계 백화점은 지난 4-6일 어린이날 연휴 기간 매출이 지난해 어린이날 연휴 5월 5-7일 대비 10.7% 늘었다고 7일 밝혔다.

어린이날 선물 수요로 아동 카테고리 매출이 15.2% 증가했고, 화장품은 14.4%, 해외패션(명품)은 14.3% 각각 늘었다. 비가 오면서 백화점 내에서 식사하는 고객이 늘면서 식음료(F&B) 매출도 1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현대백화점 매출은 7.6% 증가했다. 방문객도 평상시 주말보다 1.4배 많았다.

매출 증가세는 영패션(12.2% ↑), 아

동(8% ↑), 식음료(6.4% ↑)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기간 롯데백화점 매출도 5% 증가했다. 키즈 상품군과 식음료 매출이 각각 25%로 크게 늘었다.

고물가에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는 고객이 늘면서 아웃렛 매출은 백화점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대아웃렛과 롯데아웃렛 매출은 해당 기간 작년과 비교해 각각 11.9%, 10%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신세계아웃렛 방문 차량 수는 작년보다 12% 증가했다.

◇호텔, 서울·제주 등 점유율 80% 웃돌아 서울과 제주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도시 호텔들도 모처럼 몰려드는

관광객에 바쁜 연휴를 보냈다.

롯데호텔엔리조트가 운영하는 롯데호텔 서울·제주, 시그니엘 부산 등 3곳의 평균 객실 점유율 역시 모두 80%를 웃돌았다. 이 중 서울 중구에 자리한 롯데호텔 서울의 경우 외국인 비중이 약 80%에 달했다.

조선호텔엔리조트도 웨스틴 조선 서울, 웨스틴 조선 부산, 그랜드 조선 제주의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의 평균 객실 점유율이 80-9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숙객 비중은 서울 평균 80%, 부산 35%, 제주 10%를 각각 기록했다.

롯데관광개발이 운영하는 그랜드하얏트 제주는 지난 27일부터 지난 5일까지 1만1천800실이 판매됐다. 이는 개장

이후 최대 실적이다.

면세점도 늘어난 중국 관광객과 K-뷰티·패션 등의 인기로 매출이 증가했다.

롯데면세점의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매출은 지난해 황금연휴(4월 29일-5월 7일) 대비 46.3% 증가했다. 올해 황금연휴가 지난해보다 하루 늘어나 일 평균 매출은 31.7% 뛰었다고 롯데 측은 귀띔했다.

면세점 이용자 국적 비중을 보면 중국이 75.5%로 지난해(71%)보다 늘었고, 일본은 2.6%로 지난해 3.5%보다 줄었다. 내국인 이용 비중은 18.2%로 지난해 20%보다 낮아졌다.

같은 기간 현대면세점 매출은 25.4%, 신세계면세점은 명동점 기준으로 14% 각각 증가했다. /연합뉴스

중기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 참여기업 모집

EU 수출 기업 대상 관세부담 완화 중점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7일 "오는 31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올해 신설된 이번 지원 사업은 탄소 배출량 측정 보고 검증 비용을 지원해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검증 건설링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한다.

김우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2026년 EU 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솔 기자



4월 외환보유액 60억달러 감소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132억6천만달러(약 561조6천억원)로, 3월 말(4천192억5천만달러)보다 59억9천만달러 감소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 /연합뉴스

韓조선, 4월 선박수주 2위

올해 4월 한국 조선업계가 경쟁국인 중국에 수주량이 크게 밀리며 세계 2위로 떨어졌다.

7일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471만CGT(표준선 환산톤수·121척)로 작년 동월 대비 24%

증가했다.

중국이 358만CGT(91척)를 수주해 76%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5분의 1 수준인 67만CGT(13척·14%)를 수주하는 데 그쳐 2위에 랭크됐다.

지난달 말 기준 세계 수주 잔량(남은 건조량)은 전월 말 대비 10만CGT 감소

한 1억2천991만CGT였다.

국가별 수주 잔량은 중국 6천486만CGT(60%), 한국 3천910만CGT(30%) 등의 순이었다.

선종별 1척 가격은 17만4천m³ 이상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 2억6천400만달러,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이 1억3천500만달러,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2억6천650만달러였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당근마켓·번개장터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허용

식약처, 1년간 시범사업

그동안 개인 간 거래가 되지 않던 건강기능식품을 8일부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에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반영해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시범사업인 만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안전성과 유통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 거래 플랫폼 2곳에서만 운영되며,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는 시범사업 기간 개인 간 거래 전용 카테고리 신설

해 운영하고, 거래 가능 기준에 따른 영업자 필터링 시스템도 마련했다.

이들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고 제품명과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으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제품만 거래할 수 있고 냉장 보관 필요 제품은 제외된다.

또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구(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별 판매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판매액 30만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지나친 개인 판매를 방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해보험 절반은 인터넷 가입...주행거리 할인 평균 13만원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절반은 인터넷 가입했으며 주행거리 할인 특약 가입자는 평균 12만9천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2023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으로 가입한 비율이 전년 대비 2.9%p 증가한 47.0%였다고 7일 밝혔다.

대면 및 전화가입 비중은 각각 35.6%, 17.4%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가입 시 보험료는 전체 평균 보험료보다 10.9% 저렴했다.

개인용 승용차의 주행거리 특약 가입률은 84.5%로 전년 대비 5.7%p 늘었다. 특약 가입자 중 66.2%는 평균 12만9천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h3>토지매매 (전원토지) 농막전문</h3>	<h3>상가 매매 (상무지구)</h3>	<h3>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 중급반]</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780평 → 매매 1억2천만 (임야) 2) 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302평 → 매매 2억1천 (농막포함) 3) 장성 상오리 (장성댐 5분) 230평 → 매매 2억3천만 (농막포함) 4) 담양 무정면 (광주 20분) 853평 → 매매 5억 (개발토지) 5) 광주 서구 쌍촌동 (도로) 496평 → 매매 5억 (매년 보상나옴) 	<p>▶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p> <p>유흥가능 (룸, 노래홀, 홀덱)</p> <p>6층 (전용 60평) 7층 (전용 40평)</p> <p>★ 전용 100평 ★ (분양160평)</p> <p>(보3천, 월수익 350만)</p> <p>▶ 시세 - 13억</p> <p>▶ 급매 - 7억 (용4억)</p>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p>▶ 경매 물건 추천 ◀</p> <p>광주 전남</p> <p>광산구 신항동 (상가주택) ▶ 감정가6억4천 → 최저가 3억6천 남구 진월동 (상가주택)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8억3천 광산구 쌍암동 (상가빌딩) ▶ 감정가39억 → 최저가 27억 북구 용봉동 (카센터) ▶ 감정가 6억 → 최저가 6억 동구 학동 (상가빌딩)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4억4천 광산구 비아동 (토지, 446평) ▶ 감정가 11억6천 → 최저가 9억3천 광산구 도산동 (토지, 94평) ▶ 감정가 3억4천 → 최저가 2억4천 장성군 삼서면 (의료시설) ▶ 감정가 37억 → 최저가 26억</p>
<p>010-6670-9800</p>		<p>062-382-5500</p>